

사도신경 강해 12강 보조자료

(그 법정을 기억하라)

I. 죄 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 나는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 “(I believe in) the forgiveness of sins;”

※ 사도신경의 구조

성부	전능하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II. 12강 주요 문답 내용(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56문과 56답

56문) “죄 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56답)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최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2.64문과 64답

64문)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64답)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어떻게 기억을 못하실 수 있나?¹⁾

여기서 기억이라는 단어는 신인동형론적²⁾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한 일, 그리고 최악된 본성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모든 것을 살살이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종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기억상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로마서 3장 25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간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 참고구절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6:23)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계12:10)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롬3:25)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빌1:6)

"(14)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 6:14-15)

"(3)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4)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시130:3-4)

1) 이성호, 『특강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서울: 흑곰북스, 2013), 217.

2) 신인동형론(新人同型論)적 표현이란 마치 스스로 피조물이기라도 하신 듯,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친밀하게 알려주시고 나타내시는 방식을 뜻한다.